

## 교회 소식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린 문으로(계 3:7-8)"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 삶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매일 저녁 9시 김동수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 나라들과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몽크 교회 다락방을 열어두겠습니다.
- 2/3(토) 예결산위원회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 오늘 친교를 섬겨주시는 성창현 김은영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변명균 집사 (시 111)
- 1월 안내: 강승연 집사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 **English Service:** 2:00pm, Zoom
-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장효종 / **반주자:** 이현주

## 기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영호,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크로아티아 순돈호,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제24권 3호

2024년 1월 21일

<2024년 단어>

열린 문으로

(요한계시록 3:7-8)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mailto: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2:00pm> Presider: Esther Song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Prayer----- Stephen Ahn

Word of God----- **Heb 13:17-19** -----Pastor Edwin

Sermon ----- “**For Your Leaders**” - Pastor Edwin Kim

Reflection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기도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68(32)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다함께

Hymn 87(87)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대표기도 ----- 시편 62:5-12 ----- 민홍기 집사

Prayer

찬양대-----“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세광찬양대

Choir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사 43:1-3a -----인도자

Word of God

설교 -----“너는 내 것이라”-----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445(50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오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사 43:1-3a)

본문의 원 맥락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위로하시며 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땅과 성전을 잃고

낙심하고 두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창조자, 구속자, 언약의 주님입니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토기장이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갑니다. 값주고 산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내 백성,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속과 언약을 위해 애굽은 떨었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도 넘었으며, 시내산은 불탔고, 광야의 불뱀과 목마름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언약의 백성, 그의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 뿐이라면 현재는 상심이고 미래는 두려움이지만, 지금 하나님 것이면 현재는 은혜이고 미래는 소망입니다.

물과 불을 누가 건넵니까? 예수를 생각합니다. 새 피조물 삼아 형상을 회복하신 구주 예수.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예수. 우리에게 자기 이름의 영광을 맡기신 예수를 생각합니다. 파도 위를 걸으신 예수, 아니 그와 함께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받은 예수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목말라 심판의 불에 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생수가 되신 예수를 생각합니다.

종말의 파도도 불과 같은 강림도 예수 붙잡고 건너는 겁니다. 죽음의 강도 불같은 심판도 예수께 붙들려 지나는 겁니다. 지금 머리를 덮던 파도를 실만한 물가로, 불타는 목마름 가운데 광야의 생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구속자, 언약의 주님. 예수께서 만들어 가시게 순종합니다. 값 주고 산 신부이니 다른 데 눈 팔지 맙시다. 이미 존귀하다 하시니 헛된 치장을 거둬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